

우즈베키스탄의 국경구조와 정치과정이 문화접변에 미치는 영향*

이영형**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유입 환경
II. 문화접변에 대한 인식과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엘리트	IV.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과정과 문화 접변 환경
III. 우즈베키스탄의 국경구조와 문화	V. 끝맺는 말

| 논문요약 |

본 글은 국경 상황과 국내외 정치과정을 조사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문화 접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체제전환정책이 외부문화 유입을 자극하게 되고, 내재적 문화 복원과 함께 다양한 외부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새로운 문화 형태로 변모해 가는 현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체제전환을 주도해 온 카리모프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외부문화 유입과 문화접변 현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장기집권 현상을 정리하면서 본 글이 시작된다.

우즈베키스탄의 국경구조가 내재적 문화 복원과 함께 중동(이슬람) 문화 등을 비롯한 외부문화가 보다 활기차게 유입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국내외 정치과정에서 외부문화가 유입되고 있는 현상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이 다자협의기구에의 참여를 통해 문화접변을 허용하게 되는 환경 요인을 시기별로 정리 및 분석한다. 체제전환정책과 내재적 문화 복원, 외부문화 유입과 문화접변 현상 등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의 기존 문화질서가 해체될 수 있는 가변성 현상을 보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4365).

**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부설 국제평화현대연구소 소장.

이고 있음을 밝힌다.

▪ 주제어: 우즈베키스탄 국경, 외부문화 유입, 이슬람문화, 문화접변, 가변성문화

I. 들어가는 말

모든 국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타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문화전파 현상이 발생한다. 상이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접촉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문화에 변동이 일어나는 문화접변(acculturation)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국제사회가 발전되면서 문화접변 현상이 보다 긴밀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지만, 지난 냉전기에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블록구조가 형성되면서 이질적인 문화집단 간의 접촉이 위축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탈냉전과 함께 문화접변 현상이 다양한 모습으로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신하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문화접촉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소련에 강압적으로 결속되어 온 유라시아 국가들의 체제전환정책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보였다.

1991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유라시아 국가들은 지난 70년 동안 유지해 오던 기존의 공산당 1당 체제 및 공산주의 경제시스템을 대신해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사회로의 체제전환 작업에 착수했다. 체제전환정책이 외부문화 유입을 자극했고, 문화유입에 따라 문화접변 현상이 나타났다.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중동문화에 접해 있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서유럽의 정치 및 경제 문화를 수용하면서 시스템 개혁에 착수했고, 내재적 문화 복원과 함께 슬라브문화, 유럽문화, 중국문화, 중동문화 등이 상호 접촉하게 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들의 지리 환경과 법·제도, 그리고 이에 따르는 정치과정이 문화접변 현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지리 환경과 국경 상황이 체제전환정책 및 외부와의 관계망 구축과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을 연출하도록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문화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부터 자신의 방식에 기초된 3권 분립과 다당제, 그리고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모델을 도입했다. 국가의 역할 증대와 함께 점진적인 체제전환모델을 도입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과정은 과거의 정치문화가 상존한 1인 장기집권 체제를 유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자본주의 사회로의 점진적인 이행은 시장경제에 기초된 자본주의 경제문화가 미미한 수준에서 전파되도록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 및 경제 영역, 그리고 사회문화 영역에서 문화접변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본 글은 우즈베키스탄의 국경구조와 정치과정이 문화접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체제전환과 함께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전파되고 새로운 문화로 변화해 가는 문화접변 현상을 자극하게 되는 환경을 조사하는 데 목적을 둔다. 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 글에서는 타일러(Tylor 1871)가 정의하고 있는 문화, 즉 한 사회의 구성원이 갖는 법, 도덕, 신념, 예술, 기타 여러 행동양식을 총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우즈베키스탄의 문화를 다루는 국내의 다수 논문이 있지만, 체제전환과 함께 발생되고 있는 문화접변 현상을 연구하고 있는 국내의 연구 결과물은 보이지 않는다. 문화접변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환경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 연구는 기존 논문과 차별성을 보일 것이다. 본 글의 연구 시기는 1991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장기집권해 온 카리모프(I. A. Karimov) 대통령이 사망하는 2016년까지로 한다.

본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문화접변에 대한 인식과 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장기집권 현상을 정리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 엘리트집단의 의지가 외부문화 유입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제Ⅲ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국경 상황이 외부문화 유입에 미치는 환경을 조사한다. 국가영토의 자연지리구조와 국경 상황, 그리고 국경 상황과 문화유입 환경을 정리한다. 제Ⅳ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과정과 문화접변 환경을 조사한다. 국내정

치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접변 환경을 조사하고, 안보외교 및 다자협력기구에의 참여 문제를 중심으로 문화접변 환경을 조사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지역성을 도출한다.

II. 문화접변에 대한 인식과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엘리트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과 외부문화 유입과정에는 최고 권력엘리트(대통령)의 정치적 목적과 의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문화접변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정리함과 동시에 외부문화와의 접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카리모프(I. A. Karimov) 대통령의 장기집권 현상을 정리한다.

1. 문화접변에 대한 인식과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유입 환경

문화접변이란 상이한 문화집단 간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문화 요소가 전파되어 새로운 양식의 문화로 변화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의미한다. 문화접변은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무력정복이나 식민지화 전략 등으로 강제적인 문화접변이 강행될 경우 일종의 선택적 과정(selective process)을 거치게 된다.¹⁾ 그리고 문화접변 현상은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긍정적(창조적·건설적) 결과란 문화접변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문화가 창조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결과를 말한다. 이에 반해 부정적(파괴적) 결과란 피전파문화로 하여금 자율성이나 독자성을 상실케 함으로써 문화의 융합(fusion)이나 동화(assimilation) 현상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문화의 융합이란 두 개의 문화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제3의 문화체계를 새로이 창

1) 이질문화를 받는 측에서는 전파되어 온 문화 요소들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며, 또 전파된 것이 다른 사회에서 모두 그대로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다만 받아들이는 쪽의 사회나 생활여건에 맞는 것만이 살아남으며 접변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등 선택적이다.

출해내는 현상을 말하며, 문화의 동화는 일방적인 흡수 형태를 띠면서 한 문화가 다른 문화의 방향으로 접근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일방적인 흡수 일지라도 문화의 독자성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동화란 찾아보기 어렵다 (정수일 2013).

문화접변 현상은 체제전환과정에서 기존의 문화가 외부문화에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질적인 문화 요소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충돌·갈등·융화현상과 함께 새로운 문화로 변화해 가는 문화접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문화전파를 통해 문화변동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혼성문화(hybrid culture)가 형성되기도 한다. 문화접변은 문화변동과 다른 개념으로 이해된다. 문화변동이 포괄적인 개념이며, 문화접변은 문화변동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문화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문화접변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강한 문화가 약한 문화를 지배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문화변동과정에서 기존 문화와 새롭게 출현한 문화 간의 모순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문화지체(cultural lag)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문화지체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부조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²⁾

<그림 1>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 환경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2017년 2월 16일 검색)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정책은 이에 필요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되었고, 나약한 정치 및 경제 시스템과 함께 진행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과정은 자신의 고유문화에 대한 복원 움직임과 함께 진행되었다. 내재적 문화 복원과 함께 외부문화 침투 현상에 기초된 문화접변 현상이 함께 작동했다. 체제전환정책 기간 동안 미국과 유럽이 경성 및 연성 권력 자원을 활용해 자신들의 문화를 우즈베키스탄 공간으로 침투시켜 지역 내 러시아문화를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했고, 중국과 인도 문화 역시 침투되었다. 중동문화가 유입(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되기 시작했고, 지난 70년 동안 유지해 온 슬라브문화를 대신해 고유문화가 복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카리모프 대통령이 추진한 체제전환정책은 외부문화가 다양하게 유입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조성해 갔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는 유럽·중동·아시아 문화가 만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지만, 지난 소비에트 시기에 슬라브문화가 강압적으로 이식되었다. 그러나 소련 해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이 추진한 체제전환정책이 내재적 문화 복원 움직임과 함께 동일 지역으로 다양한 외부문화가 유입될 수 있는 개방된 정치공간을 만들어갔다.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정책은 최고 권력엘리트와 소수 엘리트집단의 정치적 의지가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추진되었고, 체제전환기간 동안 정치 및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영역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외부문화가 침투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문화접변 현상이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연지리 환경이 주변국의 개입을 자극하는 환경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들 국가에서 추진된 정치과정이 내재적 문화 복원과 외부문화 침투현상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2010년 이후 푸틴 대통령이 이슬람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 등에 슬라브문화가 유지 또는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 국민들이 이슬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존의 슬라브문화권에서 이탈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슬람문화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역시 외부문화 침투와 문화접변 현상에 직면했다(Dagiev 2011). 이러한 과정에

서 우즈베키스탄의 지역성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정책이 문화접변 현상을 자극했고 혼성 문화(hybrid culture)가 탄생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체제전환정책이 개별 국가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국가 성격에 기초된 지역성은 수용성(受容性), 가변성(可變性), 내구성(耐久性)으로 분류된다.³⁾ 다양한 문화유입에 노출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가변성을 지닌 국가로 분류된다. 가변성 지역은 외부세력이 다양한 형태로 개입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지역이다. 외부세력의 유입으로 인해 내재적 속성이 변형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이영형 2010, 129). 이러한 지역성 수용에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엘리트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2. 카리모프(I. A. Karimov) 대통령의 장기집권

1992년 1월부터 구소련의 개별 공화국들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체제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정치시스템 영역에서는 공산당 1당 독재에서 3권 분립에 기초된 민주주의 체제로, 경제 영역에서는 공산주의에서 시장 경제에 기초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이 인정되었고, 다양한 서구문화가 유입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외부문화 유입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최고정치엘리트 1인의 장기집권과 함께했다. 중앙아시아 CIS 5개국 중에서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하면,⁴⁾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N. A. Nazarbayev), 우

3) 내구성(durability) 지역은 특정의 조건하에서 기존의 지역성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이 가능한 한 오랜 기간 지속되는 성질을 보인다. 내향(introversion)성 지역을 의미하며 동일지역 내에서 다양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향을 갖는다. 가변성 지역은 외부세력이 다양한 형태로 개입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지역이며, 외부세력의 유입으로 인해 내재적 속성이 변형되는 경향을 보인다. 수용성(受容性) 지역은 외부로 진출하려는 욕망을 보이며, 외부와의 관계행위에 적극성을 보인다. 수용성은 외부의 사물 또는 사상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일컫는다. 수용(受容)은 다른 형태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카자흐스탄은 수용성,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가변성,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은 내구성 성향을 보인다(이영형 2013, 160).

4) 1990년 10월부터 2005년 3월 24일 축출될 때까지 장기 집권한 아카예프(A. Akayev) 시기를 제외하고는 특정 1인의 장기집권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I. A. Karimov), 투르크메니스탄의 베르디무хам메도프(G. Berdymukhammedov)⁵⁾, 타지키스탄의 라흐몬(E. Rahmon) 대통령이 장기집권에 왔거나 현재까지 집권하고 있다.

<표 1> 우즈베키스탄의 선거과정과 카리모프 대통령의 장기집권

일시	내용
1990. 3. 25	최고회의, 카리모프 대통령 선출
1991. 12. 29	대통령 선거, 카리모프가 5년 임기의 직선제 초대 대통령 선출 (95% 투표율과 86%의 지지)
1994. 12. 25	총선, 인민민주당이 82.5% 확보 (중앙통제시장경제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 확보)
1995. 3. 26	국민투표, 대통령의 임기연장을 포함하는 개헌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여 99.6% 지지로 관철 (1996년 12월 만료 예정이던 대통령 임기를 2000년까지 연장)
2000. 1. 9	대통령 선거, 카리모프가 91.9%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 (서방선거감시단은 불공정 선거로 규정)
2002. 1. 27	개헌국민투표 실시(카리모프 대통령 재선 후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양원제 의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국민투표가 93% 지지율로 통과, 2007년 12월까지 대통령 임기 연장에 성공)
2005. 1. 1	양원제로 전환(2004년 12월 선거법 개정, 상원 100석, 하원 150석, 임기 5년)
2007. 12. 23	대통령 선거, 카리모프 대통령 당선(임기 7년, 득표율 88.1%)
2009. 12. 27	총선, 하원 135석 모두 여당인 인민민주당(LDPU)과 친정부 정당후보가 확보(야당은 의회진출 실패)
2011. 12. 5	상원, 헌법 개정 승인(대통령이 기존의 임기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고, 12월 5일 상원이 7차 본회의를 개최해 카리모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임기 감축안 승인)
2014. 12. 21	총선, 실질적인 야당이 부재한 상태에서 여당 압승(하원 150석 중 대통령이 소속된 자유민주당이 52석, 민족부흥당 36석, 인민민주당 27석, 정의당 20석, 그리고 15석은 우즈베키스탄 생태운동에 자동 배당)
2015. 3. 29	대통령 선거, 카리모프 대통령을 비롯해 총 4명이 입후보 (카리모프가 약 90%의 득표율로 당선)
2016. 9. 2	카리모프 대통령, 뇌출혈로 사망 (1990년 소련 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에서 시작되어 1991년 12월 직선제로 초대 대통령에 선출된 뒤 25년 넘게 체제전환 주도)
2016. 12. 4	대통령 선거, 미르지요예프(S. M. Mirziyoyev) 전 총리가 88.61% 득표하여 당선(2016년 12월 14일 대통령 취임)

5) 2017년 2월 12일 실시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선거에서 97.69%의 득표율을 얻은 베르디무хам메도프(G. Berdymukhammedov)가 7년 임기의 3선 대통령 업무를 시작했다.

우즈베키스탄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기초된 점진적인 체제전환 방식을 취했다. 카리모프 대통령의 장기집권이 외부문화 유입과 사회문화 현상 및 지역성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카리모프 대통령이 주도해 온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과정이 기존 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혼용되도록 했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개입과 문화 확산이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접변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 주변국의 개입과 전통문화 복원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추진된 카리모프 대통령의 체제전환정책이 우즈베키스탄의 지역성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Ⅲ. 우즈베키스탄의 국경구조와 문화유입 환경

1. 국가영토의 자연지리구조와 국경 상황

우즈베키스탄의 자연지리 환경이 국가발전 및 외부문화 유입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국가영토의 자연지리구조를 개괄한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의 전체 영토는 448,900km²이다. 남북 길이가 930km이고, 동서는 1,425km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역동성은 자신의 동부지역에서 보다 활발하다. 안디잔 주의 중심도시인 안디잔(Андижан) 시에서 카라칼팍스탄공화국의 중심지인 누쿠스(Нукус) 시까지의 거리는 1475km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역시 자신의 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수도인 타슈켄트 시(г. Ташкент)에서 누쿠스(Нукус) 시까지의 거리가 1113km에 이른다(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2009, 69).

2010년 6월에 키르기스스탄 남부 오쉬 및 질랄아바드 지역에서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 민족분규가 발생하면서 문화전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⁶⁾ 대체적으로 국경구조가 문화전파에 긍정적인

6)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간 국경획정 회의는 2012년 7월 16-21일 오쉬 시에서 열렸다.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국경획정위원회(Uzbekistan and Kyrgyzstan governmental commission on delimitation and demarcation of the Uzbek-kyrgyz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인접된 수도권 문화가 상생의 문화전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카자흐스탄의 수도가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이전된 경우와 중동문화권에 보가 근접된 투르크메니스탄의 아슈하바트를 제외하면 3개국의 수도가 근접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쉬켄트에서 카자흐스탄의 구수도인 알마티까지의 거리가 679km에 불과하며, 비행시간은 1시간 35분이다. 그리고 알마티에서 키르기스스탄의 비쉬켄 MANAS 국제공항까지는 209km(비행시간 55분), 비쉬켄에서 타쉬켄트까지는 472km(비행시간 1시간 5분)에 불과하다. 타지키스탄의 두산베 역시 근접되어 있다. 근접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수도권문화가 동일 또는 유사한 문화의 전파 및 확산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수도권문화가 상대국의 지역성 수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그림 2> 중앙아시아 5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경구조⁷⁾



border)는 우즈베크-키르기스 국경의 몇몇 지역들에서 공동조사를 수행하고 국경확정 회담을 계속하는 데 합의했다(*Polit. Uz* 2012/07/28). 그러나 국경설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7) Countryreports, <http://www.countryreports.org/country/Uzbekistan.htm>. (2018년 1월 23일 검색)

<표 2> 우즈베키스탄의 국경 현황(km)

카자흐스탄	2,203	키르기스스탄	1,099
투르크메니스탄	1,621	아프가니스탄	137
타지키스탄	1,161	전체	6,221

우즈베키스탄의 국경구조가 외부문화 유입과 대외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경은 동쪽으로 키르기스스탄 및 타지키스탄에 접하고, 남쪽은 아프가니스탄, 남서쪽은 투르크메니스탄, 북쪽과 북서쪽은 카자흐스탄에 접한다. 우즈베키스탄의 남부와 동부 국경선이 이슬람문화에 긴밀히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전체 국경 길이는 6,221km이다. 아프가니스탄(137km), 카자흐스탄(2,203km), 키르기스스탄(1,099km), 타지키스탄(1,161km),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1,621km)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경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의 강력한 국가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접하지 않으며, 슬라브문화가 오랜 기간 강압적으로 이식되었던 중앙아시아 5개국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는 점이고, 중동과 이슬람 문화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경구조가 외부문화와의 접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경이 갖는 이러한 특징이 슬라브문화와의 직접적인 접촉에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중앙아시아의 슬라브문화권에 둘러싸인 국경구조가 우즈베키스탄 영토에서 슬라브문화가 지속 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중동에 연결된 국경 상황이 고유문화 복원과 이슬람문화 유입에 보다 유익한 환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국경 상황과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유입 환경

국가의 행위는 그 나라의 지리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추진된다. 지리학은 국가의 대외정책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다(Кузнецов 1999, 185). 따라서 나폴레옹은 “한 국가의 지리를 안다는 것은 그 국가의

대외정책을 아는 것과 같다”고 했다(브레진스키 2003, 58). 비스마르크(Bismarck) 역시 지리가 역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 중 불변하는 유일한 요소라고 했다. 모든 국가는 자신의 지리 환경에 기초해서 성장 및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게 된다. 지리 환경이 정책수립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경구조가 외부문화 유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경이 인접된 국가의 발전이나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Prescott 1972, 55; 베슬러 1995, 50), 인접국가의 문화와 접촉하는 선이 된다. 환경결정론(environmentalism) 입장을 취하던 환경가능론(environmental possibilism) 입장을 취하던 상관없이, 국경은 외부문화와 접촉하는 선이며 문화유입 및 유출의 통로가 된다.⁸⁾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인접된 수도권이 국가 상호 간 문화전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국경선이 지난 소비에트 시절에 함께했던 슬라브문화가 상호 전파되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슬라브문화가 점차적으로 위축되고 있기는 하지만, 슬라브문화가 2018년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환경 요인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국경구조가 우즈베키스탄으로 하여금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치 및 경제 관계 긴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지역에 산재된 슬라브문화가 유통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국경분쟁 잠재력이 상존해 있기는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국경선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망을 긴밀히 유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8) 환경결정론(environmentalism)은 문화와 사회 발전에 있어 환경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논한다. 환경결정론은 천연자원·기후·지형 등을 포함해 인간의 물리적 주변 환경을 문화 형성의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역사와 전통, 사회적·경제적 요인들, 기타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서 사회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부정한다. 이에 반해 환경가능론(environmental possibilism)은 환경이란 인간의 선택 가능성을 창출하는 데 불과하다는 주장을 편다(Encyclopaedia Britannica 1985, 512). 자연환경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절대적으로 보는 환경결정론은 독일의 지리학자 라첼(F. Ratzel) 등에 의해서 설명되어졌다. 그리고 프랑스의 블라슈(Blache)는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에 있어 인간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자연의 영향을 수동적으로 보면서 동일한 자연환경도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의 문화수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지며 자연은 단지 인간에게 가능성을 제공할 뿐이라는 환경가능론을 주장했다(이영형 2010, 119).

우즈베키스탄의 국경선이 북쪽으로 카자흐스탄과 길게 접하면서 카자흐스탄을 통해 슬라브문화가 유입 및 전파되도록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슬라브문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슬라브문화가 국경선을 타고 우즈베키스탄 공간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쪽으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남쪽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접해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타지키스탄이 우즈베키스탄의 동남부 지역에 접해 있다. 이슬람문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자연지리구조에 기초되면, 카자흐스탄과 연결된 북부지역 국경을 제외한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국경선이 중동지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면서 이슬람문화권에 보다 견고히 결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지리 환경이 우즈베키스탄의 내재적 문화 복원과 함께 중동(이슬람)문화가 보다 견고히 작동되도록 하는 환경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중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자연지리 환경이 외부문화 유입 및 전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자연지리 환경이 기존의 슬라브문화를 유지시킴과 동시에 보다 왕성하게 전통문화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자연지리 환경이 내재적 문화 복원과 함께 중동의 이슬람 문화에 보다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변수의 하나가 되고 있다. 정치과정에 따라 문화유입 환경이 변화되기는 하겠지만, 자연지리구조가 슬라브문화에 의존된 우즈베키스탄이 아닌 문화접변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국가 사회를 유도하고 있다.

IV.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과정과 문화접변 환경

1. 국내정치과정과 문화접변 환경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정책이 1992년 12월 8일 헌법 제정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헌법 제11조에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립을 명기하고 있다.

헌법에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법치주의, 공정한 재판 등을 명시하고 있다(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009). 이러한 법적 토대와 함께 체제전환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와 함께 외부문화 유입이 가능한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정치 및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과정과 이에 따르는 외부문화 유입 환경을 정리하기로 한다.

첫째, 정치 및 경제 영역의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외부문화 유입 환경이다. 정치시스템 구축 문제에 관련해서는 정치문화에 초점을 맞춘다. 정치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서유럽의 민주주의 모델을 도입했지만, 실질적인 정치과정에서는 지난 시절의 내재적 정치문화인 행정부 중시전통과 복종형 정치문화가 유지되었다. 건전한 야당이 부재했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문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고 정치엘리트 1인과 주변의 소수 권력집단에 의해 정치과정이 독점되었다. 서유럽과 같은 참여형 정치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정치문화 교육 역시 부재했다(Bertelsmann Stiftung 2016, 5-14). 정치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서구의 민주주의제도를 모방한 외피형 민주주의(facade democracy)가 유지되었고, 정치과정에서는 내재적이거나 슬라브문화의 전통에 기초된 권위주의 모델이 정착되었다.

경제시스템 구축과 외부문화 유입 환경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추진된 체제전환정책의 특징은 국가의 적극적인 규제역할과 국민에 대한 일정한 사회보장 제공을 통한 점진적인 방식을 취했다. 가격자유화와 사유화정책이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면서, 시장경제에 기초된 자본주의문화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나약한 수준에 머물렀다(Bertelsmann Stiftung 2016, 14-26). 소비에트 시절에 축적된 공산주의 경제 및 노동 문화가 시장경제의 그것보다 우선시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3개의 경제특구⁹⁾ 지정과 함께 노동현장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문화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자본주의 노동문화 전파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가가 관리하는 모습의 경제특구정책이었기 때문이다. 2016년 8월 당시,

9) 경제특구는 2008년 12월 2일 대통령령에 의한 나보이(Navoi) 자유산업경제특구(FIEZ), 2012년 4월의 안그렌(Angren) 특별산업지구(SIZ), 2013년 3월의 지작(Jizzak) 특별산업지구(SIZ) 특구 등이다.

체제전환이 시작된 지 25년이 흘렀지만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노동문화는 과거의 공산주의 경제문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현지 기업인들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지난날의 공산주의문화가 지배적인 모습을 보인다(이영형 2016, 34).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과 함께 자본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지난날의 소비에트 경제문화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인다.

둘째, 사회문화 영역의 특징과 문화접변 환경이다. 우즈베키스탄의 민족 및 종교 분포가 외부문화 유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7년 12월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전체 인구가 32,653.9천 명이다. 전체 인구의 약 80%가 우즈벡 민족이다. 러시아 민족 5.5%, 타직인 5%, 카자흐인 3%, 카라칼팍 2.5%, 타타르족 1.5% 등이다. 이러한 민족 구성은 자연스럽게 우즈벡 민족주의로 이어졌고, 이러한 현상이 전통문화가 복원될 수 있는 환경 요인으로 작용했다(Абашин 2007, 138-149). 그리고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종교적 신앙이다. 2011년 당시 인구의 약 93%가 명목상 무슬림이다. 수니파가 대다수이다(Bleuer 2012, 1-11). 약 4%가 러시아 정교회이지만 러시아인과 다른 슬라브인들의 이민이 계속되면서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나머지 3%는 로마가톨릭과 기타 종교이다.

<표 3> 우즈베키스탄의 민족 및 종교 분포(2011년 기준)¹⁰⁾

민족 구성		종교 현황	
민족	비율(%)	종교	비율(%)
우즈벡	80	무슬림	93 (대다수 수니파)
러시아	5.5		
타직	5	러시아정교회	4 (러시아인과 다른 슬라브인들이 이민을 계속하면서 비율이 감소 추세)
카자흐	3		
카라칼팍	2.5	로마가톨릭, 기타	3
타타르, 기타	4		

10)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https://stat.uz/ru/> (2018년 1월 23일 검색); GlobalSecurity, "Uzbekistan Religion," <https://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centralasia/> (2018년 1월 23일 검색) 참고하여 필자가 재구성함.

문화 복원과정에서 자율성을 박탈당하거나 위협 받을 경우 전통문화를 재확인하고 문화적 독립성을 위해 대중운동이 전개되는 경우가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 이슬람 부흥운동이 일어나 타슈켄트, 안디잔, 부하라 등지에서 자발적 이슬람 교육과 여성들의 베일(veil) 착용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다(장준희 2010, 1-33).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은 페르가나 계곡의 안디잔, 나망간, 마르길란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페르가나 계곡을 근거로 활동하는 원리주의자들은 와하비즘(Wahhabism)의 추종세력들이다. 이들은 예언자 무함마드와 이를 계승한 ‘정통 할리파’들이 통치했던 시대를 이슬람의 황금기로 간주하고 그 시대로의 회귀를 이상으로 삼고 있다(우덕찬 2001, 279).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IMU)이 카리모프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1999년 2월 16일 타슈켄트에서 폭탄테러 사건을 일으켰고, 2005년 5월의 안디잔 사태로 국내정치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리모프 대통령은 이슬람 반정부 세력에 대한 탄압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문화 확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Ismailov & Jarabik 2009, 1-5).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이슬람이 반러시아 경향을 보여왔고(정세진 2007, 71-96),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 원리주의와 중동 아랍의 그것에서 차이를 보인다(정세진 2008, 255-276). 중앙아시아 지역 이슬람과 중동지역 이슬람의 차이점은 중앙아시아 지역 이슬람교가 개방성(동서 문명의 교차로 성격) 및 수피즘(sufism)¹¹⁾ 성격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김원희 2012, 212). 카리모프 대통령은 철저한 정(政)·교(敎) 분리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정치 불안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내재적 이슬람문화 복원을 강조하는 종교정책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인접한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과격 시아파 원리주의 확산을 경계해왔다.

셋째, 공자학원 개설과 중국문화 수용이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공자학원을 수용하는 것 역시 문화접변 환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7년 3월 현재 공자학원총부/한반(孔子學院總部/

11) 수피즘이란 샤머니즘과 같은 토착적 요소들과 더불어 신비주의적 경향이 혼합된 민중 이슬람을 의미한다.

國家漢辦)의 웹사이트(www.hanban.org)에 등록된 유라시아 지역 공자학원(공자교실 포함) 수가 65개에 이르고,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4개국에 수십 개의 공자학원 및 공자교실이 있다. 중국이 2005년을 전후한 시기에 중앙아시아로 공자학원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2016년 말까지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에 13개의 공자학원과 22개의 공자교실이 개설되도록 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에 집중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반면에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진출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모습(공자학원 2곳)을 보였다.

<표 4> 유라시아 지역의 공자학원 현황

국가	공자학원	공자교실
Kazakhstan	5	
Kyrgyzstan	4	21
Uzbekistan	2	
Tajikistan	2	1
Georgia	1	1
Russia	17	5
Ukraine	5	1
7개국	36	29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는 공자학원의 주요 목적이 중국어, 문화, 전통, 역사 등의 학습을 통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증진에 있다. 중국은 중국어 교직원을 파견하면서 중국어 교육 및 중국어 교사 양성과 함께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 공자학원을 통해 중국어 학습, 중국 문화와 전통을 전파하고, 역사를 교육시키면서 동일 지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관심 증대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공자학원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이 중앙아시아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기는 하지만, 현지에 진출해 있는 공자학원이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접변을 자극하는 환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과 경제 진출이 우즈베키스탄으로 하여금 공자학원을 수용하

도록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2. 국제정치과정과 문화접변 환경

우즈베키스탄이 국가건설과 경제성장을 국가목표로 하면서 선택적 대외 정책 노선을 취했다. 우즈베키스탄의 대외정책 노선이 자주 노선기(1991-1998년), 친미 노선기(1999-2003년), 복귀 노선기(2004년 이후부터)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강봉구 2007). 러시아에 대한 의존성 탈피를 위해 자주외교 노선을 추진해 온 우즈베키스탄이 1999년 전후 시기부터 경제 및 기술 원조를 목적으로 친미노선을 추진했고, 2004년부터는 미국의 내정간섭에 반발해 또다시 러시아와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시기, 중국의 중앙아시아정책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다(Khodzhaev 2009, 9-28). 2012년 7월부터는 러시아 및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실용외교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추진해 온 안보외교 및 다자협력기구에의 참여를 시기 순으로 정리하면서 외부문화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정리한다. 체제전환정책과 정치체제 안정화 정도에 기초해서 체제전환 착수 및 혼란기(1991-1994년), 질적 전환기(1995-2004년), 안정적 발전기(2005년 이후부터)로 구분해서 내재적 문화 복원 움직임과 함께 외부문화(슬라브문화, 유럽문화, 중화문화, 중동문화 등)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평가한다.

첫째, 체제전환 착수 및 혼란기, 그리고 질적 전환기이다. 1992년부터 본격화된 다자협력기구에의 참여 정도를 보면 CIS와의 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신생 독립국 우즈베키스탄이 CIS를 제외한 국제적 다자협력기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것이 하나의 이유로 지적된다. 지난 소비에트 시기에 함께해 온 CIS 형제국과의 협력, 그리고 슬라브문화가 지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질적 전환기에는 문화접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내재적 문화 복원과 함께 외부문화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방향으로 다자협력기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질적 전환기에 해당되는 1999년 4월 CIS 집단안보조약기구에서 탈퇴함

과 동시에 반러시아 성향의 GUAM에 가입했고, 2001년 6월에 SCO에 참여했고 동년 10월 미국의 대테러 작전 수행을 위해 카르시-카나바드(Karshi-Khanabad) 공군기지에 미군 주둔을 허용했다. 그리고 2002-2003년 동안 IMF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질적 전환기 동안 추진된 안보외교 및 다자협력기구에의 참여 변수를 중심으로 평가하면, 내재적 문화 복원 움직임과 함께 다양한 외부문화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조성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대외관계 행태가 외부문화 유입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변수는 아니지만, 외부문화가 다양한 형태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체제전환 착수·혼란 및 질적 전환기의 안보외교와 외부문화 유입 환경

구분	일시	내용	유입문화	주도문화
체제 전환 착수 및 혼란기	1991. 12. 23	독립국가연합(CIS) 가입	슬라브문화	슬라브문화
	1992. 5. 15	CIS집단안보조약 체결	슬라브문화	
	1994. 4. 15	CIS자유무역지대 창설 협정 체결	슬라브문화	
	1994. 7. 12	NATC의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PFP) 협정 조인	유럽문화	
질적 전환기	1999. 4. 2	집단안보조약(CST)의 유효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의정서 체결을 거부하면서 탈퇴	내재적 문화 복원	내재적 문화 복원, 다양한 외부문화 유입 환경
	1999. 4. 24	GUAM 가입(GUAM은 1997년 10월 10일 조지아·우크라이나·아제르바이잔·몰도바 등 4개국이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창설된 국가협의체)	내재적 문화 복원	
	2001. 6. 15	상하이 협력기구(SCO) 정회원국 가입	중국문화, 슬라브문화	
	2002. 1. 31	IMF 제안을 수용해 전력요금(다른 에너지 가격 포함) 체제 개선을 위한 중기 프로그램 마련	유럽문화	
	2003. 10. 17	숨(Sum)회의 완전태환을 보장하는 IMF 8조 의무사항(외환자유화) 수용	유럽문화	

둘째, 안정적 발전기의 안보외교 및 다자협의기구 참여를 통한 문화유입 환경이다. 2005년 5월 21일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디잔(Andijan) 학살 사건을 전후해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개혁을 요구했다. 미국 등 서방의 정치개혁 및 인권개선 압력에 대한 반발로 러시아 중심의 외교노선으로 수정되었다 (Ismailov & Jarabik 2009, 1-5). 슬라브문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5년 8월에 미국이 자신의 야당세력을 지원하는 데 반발해 자국 주둔 미군의 철군을 요구했다. 그리고 2005년 9월 19-24일 타시켄트 남부 250km 산악지대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2005년 11월 21일 카나바드(Khanabad) 기지 미군 잔류 병력의 최종 철수가 이루어지면서 미국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완전 철수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 1월 CIS 경제협력체인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AEC)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동년 3월에 GUUAM 으로부터 탈퇴했다. 그리고 2006년 6월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정상 회의에서 동 기구 정식 회원국으로 다시 가입했다. 이러한 정치과정이 미국과 EU 등 서방의 영향권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러시아 중심의 협력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했고, 내재적 문화 복원과 함께 슬라브문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1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 미국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실리외교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2년 7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제정한 대외정책에 관한 법률은 국가안보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외교 방향을 설정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외국 군대의 국내 주둔 불가 입장을 선명하게 하면서, 러시아 중심의 CSTO로부터 탈퇴를 선언했다. 이러한 조치는 우즈베키스탄 외교의 기본 방향이 미국과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동시에 유지하는 실리외교에 있음을 의미하고, 외교관계에서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전략적 신사고로 해석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문화공간에서 내재적 문화 복원 움직임과 함께 슬라브·유럽·중국 문화 등이 보다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표 6> 안정적 발전기의 안보외교와 외부문화 유입 환경

구분	일시	내용	유입문화	주도문화
안정적 발전기	2005. 7. 29	미국이 키르기스스탄으로 피신했던 안디잔 난민 439명을 루마니아로 후송한 것과 때를 같이해 180일 이내에 카르시-하나바드(K2) 공군기지에서 모든 미군 항공기와 요원 및 장비철수 통보	내재적 문화 복원	문화접변
	2005. 9. 19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합동군사훈련 실시(타슈켄트 남부 250km 산악지대, 대테러 합동군사작전능력 향상 및 양국 군사협력 강화)	슬라브문화	
	2005. 11. 21	하나바드 미군 공군기지 폐쇄[하나바드 기지 내 미군 잔류병력(90명)의 최종 철수가 완료되면서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미군이 완전 철수]	내재적 문화 복원	
	2006. 1. 25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정회원 가입(2008년 10월 EurAsEC의 비효율성 및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의 관세동맹에 대한 경계심 등을 이유로 탈퇴)	슬라브문화	
	2006. 3. 10	GUAM에서 완전 탈퇴(2005년 12월, GUAM으로부터 탈퇴 통보)	내재적 문화 복원	
	2006. 6. 23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재가입	슬라브문화	
	2008. 1. 31	미군이 우즈베키스탄의 남부 테르메즈(Termez) 공군기지를 경유해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군기지 개방	유럽문화	
	2008. 3. 6	NATO와 합의를 통해 독일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해 온 테르메즈(Termez) 공군기지 사용권을 NATO 내 여타 동맹군(특히 미군)에게 제공(2008년 4월 카리모프 대통령, NATO 정상회의 참석)	유럽문화	
	2012. 6. 28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탈퇴	내재적 문화 복원	

결국, 우즈베키스탄의 안보외교 및 다자협의기구에의 참여는 체제전환 시기와 맞물려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내재적 문화 복원과 함께 다양한 외부문화 유입 및 문화접촉 환경을 통해 문화변동이 일어나는 문화접변(acculturation) 상황이 조성되었다. 문화변동은 자발적인 유형과 강제적인 유형으로 구분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그것은 자발적인 문화접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질적인 문화집단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요소가 통합과정을 거쳐 우즈베키스탄에 현존하는 문화체계 속으로 흡수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자율적이고 선택적 과정(selective process)에 기초된 문화접변 환경이 조성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주류 문화가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

V. 끝맺는 말

중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북쪽으로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동쪽으로 키르기스스탄 및 타지키스탄, 남쪽으로 투르크메니스탄 및 아프가니스탄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경은 카자흐스탄과 연결된 북부지역을 제외하면 모든 국경선이 중동지역의 이슬람문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국경질서구조가 우즈베키스탄의 내재적 문화 복원과 함께 중동(이슬람)문화가 보다 왕성하게 전파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국경질서에 기초해서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유입 환경을 평가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의 슬라브문화가 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됨과 동시에 전통문화 복원이 왕성하게 전개될 수 있는 구조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내재적 문화가 복원되고, 중동의 이슬람문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슬라브문화에 의해 포장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국내정치과정과 문화접변 환경이다. 정치시스템 구축과정에서는 서유럽의 민주주의 모델을 도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치과정은 내재적 정치문화가 유지되는 권위주의 형태를 보인다. 실질적인 야당이 부재하면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문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다.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를 모방한 외피형 민주주의(facade democracy) 속에서 내재적이거나 슬라브문화 전통에 기초된 권위주의 모델이 정착되고 있다. 경제시스템 구축과정에서는 가격자유화와 사유화정책이 완만하게 진척되면서 자본주의문화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극도로 제한되었다. 경제특구정책이 외부문화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시장경제문화의 전파는 완만하게 진행되었다.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내재적 문화 복원 움직임과 함께 이슬람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자학원을 중심으로 중국문화가 이식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국제정치과정과 문화접변 환경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안보외교 및 다자협의기구에의 참여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졌다. 안보외교 및 다자협의기구에의 참여를 중심으로 본다면, 체제전환 착수 및 혼란기에는 슬라브문화가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신생 독립국 우즈베키스탄이 CIS를 제외한 국제 다자협력기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질적 전환기의 그것은 문화접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내재적 문화 복원과 함께 다양한 외부문화(슬라브문화, 유럽문화, 중국문화)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안정적 발전기에는 내재적 문화 복원과 함께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면서 문화접변 현상을 보이도록 했다. 체제전환정책이 계속되면서 내재적 문화 복원과 함께 문화접변이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체제전환과 외부문화 유입 환경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을 평가한다면 문화접변과정에 있는 가변성(可變性) 국가로 지적된다. 중동의 이슬람문화, 유럽문화, 러시아 중심의 슬라브문화, 그리고 중국의 문화질서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식되는 모습을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접변은 내재적 문화 복원과 함께 점진적이며 자발적 외부문화 유입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슬라브·이슬람·유럽문화·중국문화가 침투되면서 기존의 문화질서 및 지역성이 변화될 수 있는 가변성 현상을 보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강봉구 (2007). “우즈베키스탄 대외정책의 노선 전환: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슬라브학보』. 제22권. 1호, pp. 47-75.
- 김원희 (2012). “중앙아시아의 문화적 타부(Taboo)와 협상전략 문화 간 의사소통 전략 개발을 중심으로.” 『제4차 중앙아시아 연합학술대회 <21세기 중앙아시아의 지속과 변화> 발표 논문집』. 한국슬라브학회·중앙아시아경제학회·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pp. 203-222.
- 베슬러 (1995). 『政治地理學』. 안재학 역. 명보문화사.
- 브레진스키 (2003). 『거대한 체스판: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유라시아』. 김명섭 역. 삼인.
- 우덕찬 (2001).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 『중앙아시아연구』. 제6호, pp. 277-292.
- 이영형 (2010). “국제지역연구 방법론 《지리환경 가치론》을 위한 제언: 유라시아 지역연구에의 활용 가능성을 위한 탐색.”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4권. 1호, pp. 109-142.
- _____ (2013). “중앙아시아 정치공간의 인문 지리학적 구조: 내재적 문화 복원과 외재적 문화 침투 현상을 중심으로.” 『국제문제연구』. 제13권. 2호, pp. 133-170.
- _____ (2016). “국내체류 우즈베키스탄 노동자와 한국의 다문화공생사회.” 송석원·이영형·박상신. 『한국의 다문화 공생사회와 송출국 문화의 변형적 수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p. 17-67.
- 장준희 (2010). “중앙아시아 이슬람 문화의 성격.”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0권. 3집, pp. 1-33.
- 정세진 (2007). “중앙아시아 이슬람과 반러시아 경향.” 『중앙아시아연구』. 제12호, pp. 71-96.
- _____ (2008). “이슬람 원리주의 연구 : 중앙아시아와 중동아랍의 이념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世界地域研究論叢』. 제26집. 1호, pp. 255-276.
- 정수일 (2013). 『실�크로드 사진』. 창비.
- Bleuer, C. (2012). “Instability in Tajikistan? The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and the Afghanistan Factor.” *Central Asia Security Policy Brief* No. 7, pp. 1-11.

- Dagiev, D. (2011). *The process of transition in post-soviet Central Asia and its challenge: a case study of Tajikistan and Uzbekistan*.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on.
- Encyclopaedia Britannica (1985).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 4. 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 Ismailov, S. and B. Jarabik (2009). "The EU and Uzbekistan: short-term interests versus long-term engagement." *EU Central Asia Monitoring(EUCAM)*. No. 8, pp. 1-5.
- Khodzhaev, A. (2009). "The Central Asian Polic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 Eurasia Forum Quarterly*. Vol. 7. Issue. 1, pp. 9-28.
- Prescott, J. R. V. (1972). *Political Geography*. London: Methuen.
- Tylor, E. B. (1871).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art and custom*. London: John Murray, Albemarle Street.
- Абашин, С. (2007). "Национализмы в Средней Азии. Истоки и особенности." *СВОБОДНАЯ МЫСЛЬ*. No. 7, pp. 138-149.
-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009).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Ташкент: издательско-полиграфический творческий дом «узбекистан».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2009). *Альманах Узбекистана 2008*. Ташкент: Госкомстат Узбекистана.
- Кузнецов, Ю., Никольский, В. (1999). *Введение в теорию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М.: Верный.

2. 기타

- Bertelsmann Stiftung (2016). *BTI 2016 - Uzbekistan Country Report*. Gütersloh: Bertelsmann Stiftung.
- "Uzbek and Kyrgyz Delegations Met in Osh on the Background of A Border Incident." *Polit. Uz*. July 28, 201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2017년 2월 16일 검색)
- Countryreports. <http://www.countryreports.org/country/Uzbekistan.htm>. (2018년 1월 23일 검색)

GlobalSecurity. “Uzbekistan Religion.” <https://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centralasia/>. (2018년 1월 23일 검색)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https://stat.uz/ru/>. (2018년 1월 23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8년 02월 09일 |

| 논문심사일 : 2018년 02월 22일 |

| 게재확정일 : 2018년 03월 12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5 No. 1 (2018)

The Influence of Uzbekistan's Border Structure and Political Process upon Acculturation

Yeoung-Hyeong, Lee

(International Humanitarian Network Center)

The purpose of this writing is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phenomenon of acculturation that has been formed in Uzbekistan while investigating the national borders situation and the domestic and overseas political processes. I state that the system conversion policy of Uzbekistan gets around to stimulating the inflows of the external cultures, that the cultural elements between each other get transmitted by having the cultures that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contact each other in such a process, and that Uzbekistan has been directly confronting the situation of the acculturation which changes to become a new culture. This writing begins while putting in order the phenomenon of the prolonged one-man rule by the President Karimov, who has been having a lot of the influences on the inflows of the external cultures and the acculturation phenomenon of Uzbekistan.

While investigating the structure of the national borders of Uzbekistan,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external cultures are flowed in is investigated. I state that, together with the restoration of the inherent culture, the structure of the national borders has been having a certain amount of the influences in making the culture of the Middle East (Islam) get transmitted more flourishingly. And, while stating the extent of the inflows of the external cultures in the domestic and overseas political processes, the environmental factors behind Uzbekistan's

permission of the acculturation through the participation in a multilateral consultative organization are analyzed. I state that, together with this, with the external cultures penetrating, it has been showing the changeability phenomenon through which the preexistent cultural order of Uzbekistan can be dismantled.

- Key words: The National Borders of Uzbekistan, The Inflows of the External Cultures, The Islamic Culture, The Acculturation, The Changeable Culture